

종합·해설

대구육상 참가 동유럽 5개국 목표 훈련캠프 차린 까닭은?

먹거리·자연환경 고향과 비슷 선수들 컨디션 조절에 큰 도움

핀란드 출신 한국 대표팀 코치 추천... 축구센터·사우나 등 부대시설 각광

목포시가 '2011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8월27일~9월4일)에 참가하는 해외선수단의 트레이닝 훈련캠프 프로 각광을 받으면서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5개국 대표팀 선수와 코치 90여명이 마지막 훈련캠프로 목포를 선택했다. 이는 개최지 대구를 제외하고 선수단이 찾은 지자체 6곳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이들은 대회 개막에 앞서 2주간 목포 유달 경기장과 전남체육고 등지에서 훈련을 하게 된다. 목포시가 나뭇잎을 받은 이유는 한국 육상 대표팀 창단지인 코치를 맡고 있는 이하라이넨 카리 칼레비(핀란드) 덕분이다. 칼레비 코치는 지난해에 목포에서 한국 대표팀과 전지훈련을 하면서 목포와 인연을 맺었다. 노르웨이 팀 리더인 베슬라미어 하우스켄(여)씨는 "칼레비 코치의 소개로 지난 6월 목포를 방문해 실사를 했다. 스칸디나비아 인근 국가들은 평소 국제대회를 앞두고 한 곳에서 훈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바다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목포시 풍광이 고

향 핀란드와 닮았고, 해산물 등 취향에 맞는 먹거리도 풍부해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특히 목포국제축구센터는 투척 훈련시설과 피트니스, 실내 수영장 등 최신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고, 핀란드 선수들이 즐기는 사우나도 수준급이어서 이곳을 선택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목포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좋다. 숙박 등 모든 면에서 전지훈련하기에는 좋은 곳이라서 선수들의 분위기가 업 되고 매우 편안하다"면서 "덴마크와 노르웨이 요리사 2명이 동행했기 때문에 항구도시에서 직접 구입한 해산물과 신선한 야채로 요리를 해줘 컨디션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두환 국제축구센터 마케팅팀장은 "목포시와 목포시육상연맹의 협조 속에 운동장이나 운동기구 사용 등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무엇보다 유럽 선수들은 경호나 보안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점에서 국제축구센터가 최적의 조건을 갖춰 선수들이 만족스러워 한다"며 "현재 전남 경찰

청의 협조를 받아 경호를 하고 있으며, 축구센터 주변 순찰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를 찾은 동유럽 선수 15명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7일 오후 유달 경기장에서다. 이날 덴마크 출신 포환선수 김 크리스텐슨(남)씨는 유달 경기장내에 조성된 포환 경기장 밖까지 포환을 던져, 보조 활동을 나온 국내 폼나루 선수들로부터 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종득 시장은 "북유럽 5개국 선수들이 훈련 기간 동안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 지원 및 신변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들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목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 2009년 8월 개장한 목포국제축구센터는 국내의 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말까지 최근 1년간 전지훈련에 6만 1148명, 각종 대회에 9만9953명 등 연인원 16만여 명이 이곳을 이용했고, 덕분에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18일 목포 유달 경기장에서 적응 훈련 중인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선수들. 왼쪽부터 캐서린 라르사센(노르웨이·800m), 카롤리나 클뤼프트(스웨덴·높이뛰기), 스위프 칼스손(스웨덴·20km경보)과 오토 이반에스(스웨덴·20km경보)·투포환 선수. /목포=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해외선수단 맞이 서비스는 미흡

목포에 캠프를 차린 북유럽 선수들이 지난 17일 유달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훈련을 실시했으나 경기장 준비가 제때 안 이뤄져 농성을 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미터 수 표시가 없어 직접 줄자로 거리를 재는가 하면 던진 포환을 선수가 다시 주어오는 혼란도 연출됐다.

지지 않은 까닭이다. 포환경기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잔디가 옷자라 덴마크 선수가 연습을 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미터 수 표시가 없어 직접 줄자로 거리를 재는가 하면 던진 포환을 선수가 다시 주어오는 혼란도 연출됐다.

또 해머 경기장에도 철망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안돼 위험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가장 불편한 점은 통역이었다. 선수는 15명이나 되는데 통역 요원이 1명 뿐이어서 선수들이 경기장 시결과 기구 이용 방법 등을 몰라 어

경기장 등 정비 안돼 불편 통역요원 부족 혼란 연출도

리동질하기도 했다. 이에 육상연맹 한 관계자는 "목포시에 요구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장을 정비하고, 경기 보조요원을 배치해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여 "대립 갈등 자제를" 야 "민주주의 후퇴 안돼"

여야 DJ 추모 시각차

여야는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2주년을 맞아 낮은 자제로 고인을 추모했지만 방향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대립과 갈등의 자제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에 방점을 뒀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전 대통령은 평소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진 분으로, 국회 내 성숙한 토론과 소통을 신념처럼 여겼다"며 "1964년 김 전 대통령이 한국 의회 사상 최장시간 연설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까지 필리버스터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진국회를 지향하는 우리 국회도 여야간 소통을 가로막는 토론 거부와 폭력을 근절하고, 충분한 대화와 이성적 토론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김 전 대통령

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국민은 과거 20년, 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민주주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손발을 묶는 공안 통치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해선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별도 추모사를 내고 "서거 2주기를 맞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며 "역사의 수레바퀴

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러던 김 전 대통령의 간절한 유지를 한 순간도 잊은 적 없다"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세력과 단합하고 연대해 2012년을 완전한 승리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권, 추모 '한마음' 통합 '딴마음'

민중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서거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동작동 현충원에 집결했지만 야권통합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우선 김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병석에서까지 야권통합과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말씀하셨다"며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것은 야권통합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도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통합은 김 전 대통령의 명령이고 역사가 우리에게 맡긴 지상과제다. 민주세력 통합을 이뤄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대통령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날 추모식은 각 정당의 입장차로 인해 야권의 대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이기도 했다. 손 대표와 문 이사장은 행사 전 귀빈실에서 만나 악수를 했지만 특별히 의미있는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정희 민노당 대표와 유시민 대표 등도 이날 야권통합 문제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야권통합과 관련, 야당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의 유지가 야권통합인데 서거 2주기가 되도록 별다른 결과가 없어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1 아시아 문화 포럼 Asia Culture Forum 8.22mon ~ 24wed Kimdaejeung Convention Center "하나의 아시아, 다양성 그리고 축제" Young Asian Session 8.22(월) 17:00 - 기초발제: 아시아의 역사와 기억의 재생적 축제 8.23(화) 10:00 - 제1세션: 아시아의 역사와 기억의 재생적 참조 13:30 - 제2세션: 문화적 다양성과 세계의 축제 16:00 - 제3세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축제 8.24(수) 10:00 - 특별세션: Young Asian Session 결과보고 [부대행사] 축하공연, Young Asian Session 참가 | 국내·외 인사 400여명 행사문의 아시아문화포럼 사무국 Tel_062)670-7433-5 Fax_062)670-7429 E-mail_gjcf@daum.net ※ 자세한 행사일정 및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참조 주최 광주시 광주광역시 광주시 광주시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빛의만평 - 김중두 전정권 퇴장 야수 해체하라 야권 통합

참 세상이 많이 변하긴 변했다